

V+현장탐방 \_ (주) 닉스테크

#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시장을 넘보다

(주) 닉스테크

 **NICS TECH**  
www.nicstech.com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내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다. 국가기밀에 가까운 첨단기술정보까지도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정보까지 보호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통합 PC 보안 시장에서 절대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까지 넓히고 있는 닉스테크(대표 박동훈, www.nicstech.com)를 찾아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글\_ 최문선 · 사진\_ 신상은

### 무모하게 시작된 닉스테크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 박사의 '인터넷과 비즈니스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는 닉스테크의 박동훈 대표. 전산을 공부한 사람으로 IT정보화의 기준이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기술, 시스템 등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박동훈 대표에게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네트워크 중심의 기술, 시스템, 솔루션, 서비스 등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문화적 충격을 안고 1995년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생소하던 시절 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약간은 무모하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설립된 회사가 닉스테크이다. 창업 초창기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은 엔지니어보다는 디자이너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6개월 만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그만 둔 후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술적인 측면의 영역으로 사업방향을 틀어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다.

### 어려움 극복하고 업계 1위 제품 생산

닉스테크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데스크톱 PC에서 핵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국내 대표적인 B2B 전용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다. 대표 주력상품인 세이프 PC 엔터프라이즈는 올해로 제품 출시 9년을 맞으며, 명실상부한 통합 PC 보안 시장의 NO.1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부터 고객 만족을 최우선시하는 신뢰경영 및 책임경영이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동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안 USB 사업 및 통합보안장비 UTM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닉스테크의 행보가 초기부터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창업 후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6개월 후 IMF라는 모진 바람이 불어닥친 것. 그래도 박 대표는 "IMF는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간 편"이라며 "당시는 회사규모가 작아 회사가 입은 피해나 손실이 견딜 만 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IMF를 수월하게 넘어가나 싶었던 닉스테크는 2001년 코스닥,



인터넷 관련 사업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01년에는 회사가 이미 7~8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어느 정도 회사규모가 있다 보니 감수해야 하는 충격이 IMF때 보다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하며 "70~80명이었던 직원이 30여 명으로 줄었으니 규

모면에서는 회사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죠. 그 때 상황을 극복하고 혼자회사로 복귀시키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몇번의 위기를 슬회하는 박대표. 그러나 IMF, 2001년 코스닥 대란 등을 겪고, 그 때를 경험삼아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 어느새 닉스테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견벤처로 업계에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 닉스테크는 비상 준비 중

닉스테크는 최근 'JUMP UP VISION 2010' 사업전략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기존 통합 PC보안 솔루션 부문에 있어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는 한편 기존 고객의 연속사업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부를 고객지원센터로 바꿔 고객의 접점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제품의 질적 향상과 신제품 출시를 위해 연구소 개발 본부장을 새로 영입했으며, 이에 맞춰 연구소의 인력 및 고객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유출방지 신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내부정보유출방지제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로그분석기 제품을 신규 런칭했다.

벤처기업으로 14년째인 장년의 벤처 닉스테크. 그러나 초심의 열정과 동시에 14년 업력의 노련함 둘 다를 지닌 닉스테크는 언제나 성장 중이다. 앞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업계 1위를 달성해 수많은 벤처기업에 귀감이 되는 닉스테크가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겠다”

### \_ 업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고객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이 고객들에게 믿음을 사고 그런 고객들의 신뢰가 지금의 닉스테크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 \_ 경영이념은?

M(Marathon), C(Contribution), I(Innovation) 정신입니다.

만일 이런 MCI정신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MCI정신은 사업의 생산에 관련된 것 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인성이나 생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 \_ 닉스테크의 기업문화가 있다면?

저희 회사를 첫 직장으로 삼는 직원들이 전체 직원의 30% 정도를 이루

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직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이 절대로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게끔 만들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_ 해외진출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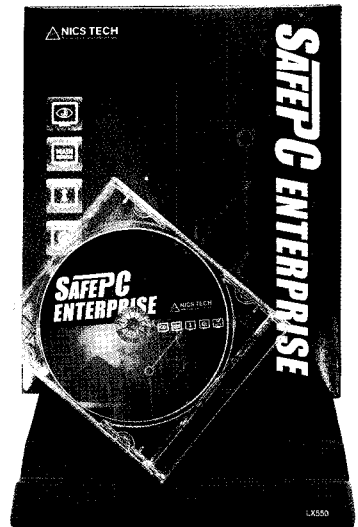
내년에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2년 전부터 일본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제품으로 진출을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 닉스테크 제품 소개 -

### ◎ 통합 PC 보안 솔루션 - SAFEPCEnterprise

닉스테크의 '세이프 pc 엔터프라이즈 3.0'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PC 안의 중요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부정보유출방지제품이다. 지난 2001년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돼온 SAFEPC 엔터프라이즈는 PC 보안기능, 자산/시스템 관리기능, 패치관리기능, 정보유출방지기능(매체제어기능), 출력물 보안기능, 노트북반출기능, 외주인력관리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의한 정보유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통합 PC 보안 솔루션이다. 이 제품의 핵심기능은 통합 PC 보안 서비스를 통해 내부자에 의한 PC시스템 남용이나 주요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Client에 의한 정보유출, 정보도용, 정보파괴, 정보변조를 방지하고 외부 침입자의 접근을 탐지, 차단하여 중요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보유출 기능으로는 외부매체제어기능(USB, CD-RW, FDD, PDA, 이동식 저장장치), 웹/메일/웹하드에 첨부첨단 및 첨부파일의 원문저장, 중요정보 암호-복호화기능, 파일 반출 승인 프로세스 기능이 있다. 또한 패치기능을 통해 자동 예약 및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 ◎ 보안 USB - SAFEUSB+

닉스테크의 USB 관리 솔루션 SAFEUSB+는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토필 제품으로 사용자의 식별 인증기능, 지정데이터 암호-복호화기능, 저장된 자료의 임의 복제 방지기능, 분실 시 저장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삭제기능, 매체제어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USB 관리 솔루션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사제품인 통합 PC 보안제품 SAFEPC Enterprise의 PC 보안 기능 중 하나인 FDD, CD-R/W, PDA, 무선랜, 시리얼, 패러렐(Parallel) 등의 매체 제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보안 USB 이외의 데이터 이동성이 있는 매체를 손쉽게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용 내역이 서버에 로그로 저장됨으로 데이터의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일일보안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제공된다.

그리고 SafeUSB+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보보안담당관/관리책임자/취급자의 3단계 권한을 두어 각 사용자의 권한에 맞게 UI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도입기관의 조직 구성에 따라 각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조직 구성에 따른 유동성도 배려했다. 특히 정보보안담당관은 관리 시스템의 모든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부서별, 파일별 보안 USB 및 매체 사용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업체로는 가장 먼저 KIST와 CC계약 체결 5월에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